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1.(수) 11:00
2026. 11. 12.(목) 조간
배포 2026. 11. 11.(수) 06:00

역대 최대 규모 '푸드위크 코리아 2026' 성황리 폐막…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 박차

- 46개국 1,000개사·252개 바이어 참관, 역대 최다 관람객(약 5만 6천 명) 발길 이어져
- 총 2,937건 상담, 계약 1,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 불고기 양념소스 등 K-식자재 관심 폭발
- K-Fresh·전통주 현장 계약 800만 달러(전년비 515%↑) 및 K-디저트 인기로 K-푸드 스펙트럼 확장 증명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식품산업 박람회「푸드위크코리아 2026」이 K-푸드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맛으로 잇는 세계, K-푸드로 통하다'를 주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올해 행사는 46개국 약 1,000개 식품기업과 252개 유력 바이어사가 참여하고 1,622개 부스가 운영되는 등 명실상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특히 일반 관람객과 바이어를 포함해 총 5만 6천여 명이 전시장을 찾아, 전년도(5만 5천여 명) 기록을 경신하며 K-푸드에 대한 뜨거운 국민적 관심과 세계적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아울러, 단순한 소비 축제를 넘어, 글로벌 B2B 비즈니스 중심으로 체질을 대전환한 이번 박람회는 K-푸드의 폭발적인 확장성과 세계적 위상을 확고히 각인시켰다.

□ 미국·유럽 바이어 매료시킨 '불고기 양념 소스'… K-식자재의 무한한 잠재력

올해 행사의 가장 큰 성과는 B2B 수출 기능의 전면적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대폭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3일간 진행된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총 2,93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현장 계약 47건, 1,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현장을 찾은 해외 바이어들은 기존 완제품을 넘어 한국 식문화의 깊이를 더해주는 불고기 양념 소스 등 K-푸드 소스류와 식자재에 뜨거운 러브콜을 보냈다. 미국의 대형 급식 및 유통 관계자들은 한국의 소스류와 식자재가 현지 단체급식 및 외식 시장에 접목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에 주목하며, 다수의 국내 기업들과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

□ K-Fresh·전통주 계약 515% 폭증 & K-디저트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존 수출 스테디셀러의 인기를 넘어, 신선 농산물(K-Fresh)과 우리술, 그리고 우리 농산물로 만든 다채로운 K-디저트가 전 세계 바이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포도·딸기 등 신선 과채류와 우리술의 현장 계약액은 약 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무려 515% 급증해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전시장 내에 마련된 'K-주막' 라이브 쇼케이스와 신선 과채류·전통주 페어링 시음·시식 코너에는 바이어와 참관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연일 인산인해를 이뤘다.

여기에 산청 곶감에 유자·대추·잣·인삼 등 전국의 특산물을 더해 만든 프리미엄 디저트를 비롯해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살린 K-디저트 부스들마다 글로벌 바이어들의 시식 세례와 상담 문의가 쇄도하며 K-푸드의 달콤하고 다채로운 매력을 세계에 유감없이 뽐냈다.

□ 세계가 주목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박람회장을 찾은 해외 바이어들은 K-푸드의 진화된 경쟁력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시장을 찾은 러시아 바이어는 “러시아에서 최근 K-푸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신선과일과 냉동식품,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관련 기업들과 심도 있는 미팅을 진행한 것은 물론, 전시장에서 소비자의 생생한 반응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제품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한국의 다채로운 식문화와 제품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 역시 매우 만족스럽다”고 현장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고숙도 딸기 수출 시범사업’ 3자(생산자-수출업체-싱가포르 바이어)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실질적인 판로 개척의 성과를 더했다. 협약에 참여한 농가 대표는 “이번 시범사업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한국산 딸기가 세계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 송미령 장관 현장 전격 방문...“골든타임 맞이한 K-푸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행사 마지막 날인 7일, 전시장을 전격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내 참가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송 장관은 전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K-푸드 수출 영토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제품과 미래 푸드테크 신기술을 면밀히 살폈다. 송 장관은 참가기업들에게 “지금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식품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골든타임을 맞이했다.”라며, “우리 식품 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뒷받침하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5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이번 「푸드위크코리아 2026」을 통해 국내 식품기업과 글로벌 바이어 간의 튼튼한 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라며, “앞으로 소스류 및 식자재 등 유망 품목의 수출 다변화를 돕고, AI·로봇 등 첨단 푸드테크와의 융합을 적극 뒷받침하여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명품 브랜드로 도약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푸드위크 코리아 2026」 관련 사진

담당 부서 <공동>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미선 (044-201-2111)
		담당자	사무관	정명희 (044-201-2112)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정락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최미루 (044-201-217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푸드위크 코리아 2026」 관련 사진















